

對모로코 미국 원조 동향

I. USAID의 對모로코 원조 현황

- USAID는 모로코 독립 이후 1960년대부터 對모로코 협력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2천5백만불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사업은 교육 및 직업훈련, 경제개발 및 직업창출, 민주주의 및 정부기반확립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뉘며 현재 2004~2008년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총 1억 2천만불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.
- 그 중 경제성장 및 직업창출 분야 협력의 경우 2004년 미국-모로코 간 FTA체결에 따라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로코의 각종 경제정책에 자문을 제공하고 농업 등 기간산업에서 모로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질향상 및 상업화를 지원하고 있음.
- USAID는 그간 아틀라스 산맥 이남 및 사하라지역(Ouarzazate 및 Zagora)에 협력사업을 중점 수행

하였으나 2004년 이후 모로코 북부 3개 지역(Oujda, Meknes, Casablanca)을 사업대상지로 선정, 상기 3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II. 외국 원조기관간 對주재국 무상 원조사업 조화 필요성

- 모로코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프랑스와 전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프랑스개발청(Agence Francaise de Development :AFD) 외 정부부처별, 지방자치단체별 협력 또한 활발하며 각종 사회정책 및 시스템개선 부분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.
- 그 외 주요 원조국으로는 독일 개발협력기구(GTZ)가 식수, 환경, 경제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(JICA)은 농수산업, 건설교통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음.

□ Bouazza 국장은 모로코 UNDP사무소가 원조기관간 협력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매년 회의를 주선하고 있으나 타국 원조기관의 소극적 참여로 원만한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동 회의에 참석, 타 원조국의 공여 현황을 청취하고 우리의 사업을 소개하여 對 모로코 협력사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안함.

Ⅲ. 기타

□ 모로코는 2004년 미국의 MCA(the Millennium Challenge Account) 대상국으로 선정된 바, Bouazza 국장은 모로코가 단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억 불 가량의 무상원조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모로코 정부는 모로코 북부지역 도로정비사업을 동 지원대상으로 신청 예정이라고 밝힘.

[자료:주모로코 대사관]